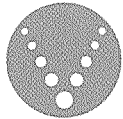


미국에서도 3G 서비스 본격 출시



CAST

오는 2월부터 미국에서도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2위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3G 서비스 'V캐스트(Vcast)'를 다음달 1일부터 미국 30개 도시에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악·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가 가능한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미국 전역에서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버라이즌, 3G서비스 첫 제공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미국에서 최초로 3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 3G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버라이즌 회장 겸 CEO 테니 스트리글은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최근 넥스텔을 인수한 스프린트보다 최소한 6개월 먼저 3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최초 서비스 제공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3G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V캐스트는 우선 NBC·MTV·뉴스코프 등으로부터 뉴스, 날씨, 스포츠 등 콘텐츠를 받아 제공하게 된다. 또 LG전자·삼성전자·UT스타콤에서 제공하는 3G 단말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미국 대도시 전역을 포괄하는 3G네트워크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3G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 EV-DO 네트워크의 다운로드 속도는 300Kbps~500Kbps로 디지털가입자회선(DSL) 속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업체 동향

미국 1위 이동통신사업자 싱귤러와이어리스는 2006년 이후에나 3G 통신망을 본격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몇몇 도시에 3G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AT&T와이어리스를 지난해 11월 인수했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3G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T모바일과 넥스텔은 3G 통신망 업그레이드 계획을 연기한 바 있다. 반면 스프린트는 디즈니 계열 스포츠채널인 ESPN에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 ESPN이 올해 말부터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프린트는 또 켈컴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3G 통신망 운영 회사 '미디어플로'와도 협상중이다.

향후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3G에 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바일 TV 시청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리라리서치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객은 14%에 불과했으며 32%가 조금 관심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트리글 버라이즌와이어리스 CEO는 "카메라폰 및 MP3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마쓰시타, 2년내 재고 20% 줄일 계획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디지털부문과 반도체시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내 재고자산을 20%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룹 산하 회사들이 사업 파트너와 판매 및 재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생산공정도 유연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마쓰시타전기의 재고자산은 원재료와 상품, 재공품, 완제품 등을 포함, 그룹 전체적으로 총 1조엔 선이었다.

마쓰시타는 2004 회계연도말에 9,000억엔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을 2005 회계연도 말까지 10% 줄일 계획이며 2006 회계연도 말까지 10%를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재고자산의 회전기간도 지난해 9월 말 현재 45일에서 2006회계연도 말까지 35일 이하로 낮추고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해 글로벌 생산기지과 사업파트너를 연결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SCM) 도입에 2006년까지 450억엔을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0대 핵심기술 중 유전자 정보 해석을 통한 신약 개발과 나노미터급 초미세 신재료 설계 등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슈퍼컴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샤프, 8세대 LCD유리기판 사용키로

일본 샤프가 일본 미에현 카메야마시 공장에서 8세대 LCD 기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2,200 x 2,400mm 크기 기판을 생산하며 이는 45~50인치 LCD TV패널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며, 이는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인 S-LCD가 7세대 라인을 통해 1,870 x 2,200mm 기판을 사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가동중인 샤프 공장에서는 6세대(1.5x1.8미터) 기판을 사용하고 있어 45인치용 패널의 경우 3개 제작할 수 있다.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개발 추진

일본 정부 자문기관인 과학기술학술심의회는 앞으로 10년간 진행할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년~2010년)'을 확정하고 세부과제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초정밀 계측 기술 ▲해저 탐사기술 등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자파인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한 계측 및 분석 기술이 10대 핵심기술 중 최우선 순위로 선정됐다. 2009년 개발 예정인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면 병리조직 진단, 마약 등 우편 내용물의 식별 등이 가능해진다.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차세대 방사선광원, 해저탐사 시스템, 전구를 100% 커버하는 위성기술 등은 오는 2010년까지 실용화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10대 핵심기술 중 유전자 정보 해석을 통한 신약 개발과 나노미터(nm, n=10억분의 1)급 초미세 신재료 설계 등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슈퍼컴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연구개발기구 요코하마연구소가 보유 중인 슈퍼컴 '지구시뮬레이터'의 차세대 기종인 '페타플롭스'를 201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지구 대기 및 해수의 순환 예측 및 지구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지구 시뮬레이터는 초당 35조 8,600회의 연산처리 속도를 기록, 당시 세계 최고 슈퍼컴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신형 슈퍼컴 개발에 힘을 쏟아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산처리 속도 순위에선 미국 슈퍼컴이 일본산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하였다.

일본이 2010년까지 개발할 '페타플롭스' 슈퍼컴은 펜티엄 133MHz 프로세서보다 1억배 가량 빠른 컴퓨터로 초당 1,000조 회나 연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페타(10의 15제곱)바이트는 10억권의 책을 저장한다.

도시바, 4분기 중 HD-DVD 드라이브 출시키로

차세대 DVD포맷 중 하나인 HD-DVD 진영을 이끌고 있는 도시바가 올 4분기 중 1,000달러에 스탠드얼론 HD-DVD 드라이브를 판매할 예정이고, HD-DVD 사양을 지원 하는 상용 제품이 등장함으로써 HD-DVD 진영은 차세대 DVD 포맷 전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될 전망이다.

HD-DVD 드라이브는 720 프로그래시브 해상도, HDMI, 1,394 및 이더넷 인터페이스 등이 지원될 예정이며, 한편 HD-DVD와 경쟁관계인 블루레이 진영의 파나소닉과 HP는 최근 지원방식을 호환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은 HP의 DVD+RW방식을, HP는 파나소닉의 DVD-RAM 방식을 앞으로 선보일 제품에 지원키로 합의,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일 마쓰시타 등 전자6개사, 프로젝터기술 보급 제휴

세이코엡손, 마쓰시타전기산업 등 일본 전자업계 6개사가 프로젝터 기술 보급 및 계몽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들 2개사 이외 소니·히타치제작소·산요전기·후지쯔 제너럴 등은 최근 '3LCD그룹'을 결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프로젝터시장에서 기술 우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3LCD는 6개사가 LCD 프로젝터, 리어프로젝션 TV 등 프로젝터 시장의 급팽창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개발해온 새로운 프로젝터 방식이다.